



김윤석 석우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윤석 석우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는 2009년 2월 26일 제 8회 기술사의 날에 과학기술포장을 수여받은 건축전기설비계의 대가이다.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작성에서부터 초고층 건축물의 편리성 확보, 380/220V 3상4선식 채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졌다. 김윤석 대표이사를 만나 그의 경영철학과 인생관을 들어본다.

-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14:00
- 장 소: 석우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실
- 참석자: 김윤석 대표이사, 한국기술사회 정춘병 홍보위원, 구수연 사원

●● 대표이사님의 주요 약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하공대 전기공학과 졸업하여, (주)한양, 현대산업개발(주) 전기 분야의 설계 및 기술개발 담당했습니다. 1981년부터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면서 "알코바 주택단지·과티프지역 하수처리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석우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입니다. 한국전기설계협회장과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장 역임하였고, 건교부와 국방부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9월 발효되었으나, 우리업계는 준비가 안되어 새 규격으로의 설계가 난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를 대표연구원으로 하는 7인의 설계기준제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공법, 전선의 허용전류, 적용계수, 국내외기준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설계기준을 제정하였고, 비용과 공인성을 고려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지원과업으로 완료하였죠. 현재, 국내 모든 전기설계 업체에서 제정된 설계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을 제정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WTO/TBT에 의한 즉, 국제무역기구 기술장벽해소 방안에 따라 건축전기설비분야인 KSC IEC 60364 시리즈가

●● 석우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로서, 타 회사와 다른 역량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외 어려운 기업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설계분야는 발주

자에 의한 직발주 제도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계약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더욱 많습니다. 대체로 저희 회사 업무처리 방식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체제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의 권위적인 근무환경에서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으며, 세계 2,3위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들, 또 수백만 m² 규모의 대단지, 조력발전소 참여, 환경 Plant 설비 등 직원들에게 최고의 경력이 될만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나 직원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멸방식 Sensor 등(燈)기구 도입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87년경 현대산업개발(주) 전기설계 책임자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현관에 타임스위치를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컴컴한 상태에서 스위치의 위치를 찾는 것이 또 다른 불편이었죠. 이에 등기구 내에 적외선 센서를 내장하여 출입 시에 자동으로 점등될 수 있도록 정풍물산(주)을 지정하여 개발시켰죠. 그 후 전국의 모든 아파트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전실에는 이 등기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허 또는 독점사용을 고집하지 않았기에 등기구 개발은 착수한지 한 달만에 신속하게 성사될 수 있었고, 타사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한 것은 등기구 개발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 때부터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은 물론 호텔, 창고 등 상시 점등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이 등기구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평소의 생활신조나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딸이 초등학교 다니던 어느 날,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부지런한 손,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이라고 써 주었죠. 창작은 아니고, 유사한 글귀를 인용한 것이었는데 나에게 필요한 말 같아서 가끔 되뇌이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시스템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가 설계완료 하였거나, 설계중인 초고층 건물은 역삼동 Financial Center(47층), 부산 롯데월드(120층), 인천 Tower(151층), 부산 해운대 I-Park (74층), 베트남 하노이 경남 밀레니엄(70층)이 있습니다. 상암동 DMC의 랜드마크 빌딩은 133층으로 640M 높이인데, 현재 당선되어 계획·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층 빌딩의 설계에는 기존 설계 경험만으로는 안되는 여러가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는 분당 800~1,000M 이상 초고속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더블 데크(Double Deck) 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충격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초고층에 따른 전기설비의 뒤틀림 대책으로 노출 공사를 지향하고 일렉트릭얼 클로젯(Electrical Closet)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채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웃리거 플로어(Outrigger Floor)에 대피소 설치를 포함한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희가 설계한 삼성동 I-Park가 국내 최고가의 명성답게 3층의 안전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고, 이는 주거인의 안전 확보에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후배 기술사들 뿐만 아니라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여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현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취직하기 어렵고 또한 일 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님을 잘 알기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늘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한 자 만이 크게 성공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